

전남TP,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구축 이끈다

9개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산자부 기술개발 과제 선정

영광 대마산단에 227억원 투입 2024년까지 시험동 등 센터 구축

전남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기술 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14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남도, 영광군 등 지자체와 전남테크노

파크,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9개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영광군 대마산단 내 6600㎡ 부지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7억원(국비 153억원)을 투입해 그린 수소 성능시험동, 관리동, 출하시설 등 센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다. 전남은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100~500kW급 수전해시스템(2종), MW급 수전해시스템(2종) 등이 포함되는 재생전력 공급모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외 다양한 수전해 설비의 장기운전성능시험 및 부하변동 성능시험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수전해시스템

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 중 하나로서 수전해시스템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이며, 수소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용 수전해 설비와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과 평가가 가능한 테스트베드(그린수소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해 국내 개발된 수전해 설비에 대한 성능, 신뢰성,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수전해 업체가 요구하는 시험에 대응하고 지역 내 수소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기간 내 기반구축 및 운영기술을 습득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은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

성 등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 수소 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그린수소 메카클러스터 10개년 계획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산업에 대한 거점 및 선도도로서 전남 수소산업 발전 전략 수립과 중소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전남도가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부진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지역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종별 로 농용굴삭기는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료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총 48억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많은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활용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맛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28일까지 참여 농가·업체 모집

전남도는 내년 설 명절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개설할 '2022 설맛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업체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농수축산물 소비가 활발한 설 명절, 도시민에게 신선한 전남 농수축산물과 명절 제수 용품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운 농민을 돕기 위해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기획했다. 직거래장터는 내년 1월 부산, 광주, 경기 성남에 소재한 4개 백화점에서 펼쳐지며, 개소당 15명 내외로 참여 인원을 선발한다. 일자별로 ▲14~30일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17~31일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19~25일 성남 김스클럽 NC백화점아파트점 ▲21~31일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장터를 연다. 전남도내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 식품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28일까지 시군 농수축산물 유통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맛이 직거래장터를 열어 대도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농수특산물을 제공하고, 농어의 소득 창출도 돕겠다"며 "다양한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멸종 위기 토종어류 보려 오세요

섬진강어류생태관 재개관 열대어 등 96종 6200마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부터 구례 간전면의 섬진강어류생태관(사진)을 멸종위기 토종어류 학습장으로 재개관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지난 2008년 개관 이후 2020년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단전으로 전시 생물 폐사 및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구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지난 8월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 다양한 전시생물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했다. 총 96종 6천200마리의 다양한 열대어, 토종어류는 물론 양서류 등 관리하는 전남의 유일한 민물고기 생태관으로 새단장했다. 전시장 인구가 대형원통수조에는 아로와나를 비

롯해 레드 테일켓 피쉬, 콜로소마 등 대형 열대어 중심으로 전시했다. 대한민국 지도를 형상화한 폭포수조에선 다양한 색깔을 겸비한 아름다운 비단잉어를 볼 수 있다. 토종어종으로 사라져가는 섬진강의 민물고기인 섬진강자사리, 쏘가리, 황어, 누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어류, 갑각류, 파충류 등을 전시했다. 파노라마 수조에선 최상류 지리산 계곡에서부터 섬진강 하구까지 서식하는 섬진강 민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테마 수조에는 개구리, 도둑게, 민물가재, 민물새우, 징거미새우와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수심종의 시클리드류와 색채가 화려한 카라신과 열대어도 관찰할 수 있다. 생태관 야외에는 피크닉정원, 생태하천, 생태연못이 있다. 잉어, 붕어, 황어, 가물치 등이 조화를 구성하여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뛰노는 학습장으로 꾸몄다.



박준택 원장은 "섬진강어류생태관이 멸종 위기 토종어종과 생물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전시관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지역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전시회

23일까지 도청 윤선도홀

전남도가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한 '2021 지역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전시회'를 13일부터 10일간 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개발을 위해 전남도가 지원하는 전남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인증기업, 정보화마을 30개 사의 시제품과 올해 친환경디자인 수상작을 선보인다. 또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 예정인 수출지원형 5개 사의 제품도 전시한다. 전시회 기간 중인 16일 개그맨 박희순이 진행하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 열려 상품 홍보 및 판매와 함께 현장의 생생함과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17일에는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전문디자인 개발 성과물 품평회를 연다. 코로나19 확산세

를 감안해 전시회의 모든 행사는 최소 인원만 참가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개발 지원사업'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품질은 좋지만 디자인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총 153개 사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2020년 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의 온라인 매출액이 지원 전 대비 62% 이상 늘었고, 기업 브랜드가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지는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은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현 상황을 지역 기업이 잘 이겨내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서귀포시, 고구마·감귤 공동 판촉전

남도장터서 최대 61% 할인

전남도가 제주 서귀포시와 함께 전남 고구마 생산 농가와 서귀포 감귤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서 '한라-백두 굶구마 공동 특판전'을 펼친다. 이번 공동 특판전 명칭은 두 기관 상생협력의 상징성을 위해 각 지역 명산인 '한라산'과 '백두대간 지리산'을 타이틀로 넣고, 감귤과 고구마를 합성한 단어 '굶구마'를 사용했다. 두 지자체는 공동 마케팅으로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특판전은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며, 겨울철 대표 간식인 전남 고구마와 서귀포 감귤을 공동 상품화해 3000세트를 판매한다. 각 세트는 굶구마 5kg과 감귤 13.5박스 이상 5kg으로 구성했다. 판매가격은 3만7180원으로, 현 시세 4만7000

원보다 21% 저렴하다. 이에 더해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액의 20%까지 할인하는 농할쿠폰과 남도장터 특별 20% 할인쿠폰까지 적용하면 최대 61%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문제없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받으면 전남도와 서귀포시가 각각 책임지고 고구마와 감귤을 동시 발송한다. 전남도는 겨울철 간식인 고구마, 감귤 등의 판매 확대를 위해 고구마·감귤 패키지 상품 제작 및 판로 확대 방안을 서귀포시에 제안, 이번 공동 판촉 결실을 봤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두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공동 상품화해 농가 돕기 온라인 공동 특판전을 연 것은 지자체 첫 사례"라며 "앞으로 타 지자체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 간 대표 농특산물을 상품화하는 공동 판촉전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아니로마트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	---	---	---	--

